

eye to eye

2014. S/S vol.7



메트로안과가 희망하는 그것은 . . .
당신께 가장 가까운 안과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필요해 !

영남일보

이상희 원장의 기사를 일부 인용



이상희 메트로안과 원장은 "눈물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눈물이 지나치게 빨리 증발해도 문제다. 눈물 구성성분의 불균형으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함 같은 불편과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시기에는 안구건조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 증상은 눈이 시리고 모래알이 들어간 듯한 이물감으로, 콧속 찜주는 느낌을 호소하는 것이다. 쉽게 눈이 피로해 잘 뜰 수 없고, 외출 시 찬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심한 경우 두통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안구건조증 하면 단순히 눈물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들은 더 다양한 증상과 원인이 있다고 강조한다.

현대사회의 질병, 안구건조증

과거에는 중장년층, 특히 폐경 후의 여성에게서 안구건조증이 흔했다. 하지만 아파트 생활로 인한 실내의 낮은 습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등 안구건조증 유발 위험 인자들이 늘면서 1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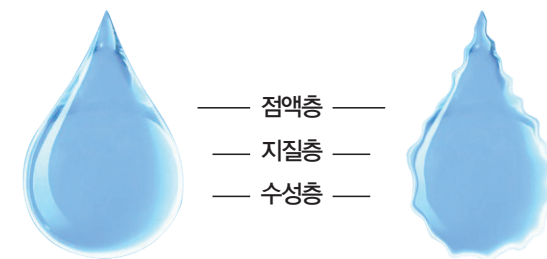
렌즈 착용자들에게서도 안구건조증이 쉽게 나타난다. 콘택트렌즈 착용은 눈깜박임 횟수를 감소시켜 눈물 증발을 증가시키며, 오랜 기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눈의 건조상태를 감지하는 각막지각능력이 떨어져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킨다. 이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렌즈 착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진료환자는 2007년 142만 명, 2011년 219만 명으로 매년 11%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또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20대 여성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장시간 콘택트렌즈 사용 및 과도한 눈화장 등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 표면에 염증을 유발한다. 각막상피세포와 각막기질세포를 자극해 근시, 난시, 원시퇴행, 각막혼탁 등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밀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 그대로 방치하거나 전문의의 진단 없이 인공누액을 장기간 사용하다간 눈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염증이 있을 때 그냥 방치하거나 인공누액만 사용한다면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안구건조증은 완치가 어려운 난치병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병원을 찾으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한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한다. 안구건조증은 원인에 따라 치료가 이뤄진다.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인공누액과 항염증안약을 점안하거나 누점폐쇄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눈에서 코로 눈물이 내려가는 눈물배출구인 누점을 막음으로써 눈물이 눈물관을 통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법이다.



정상인의 눈물

안구건조증환자의 눈물

눈물층은 각막(검은자) 쪽에서부터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나뉘는데, 수성층의 부족에 따른 안구건조증은 인공누액, 지방층의 부족에 의한 눈물 증발 증가가 원인일 때는 눈꺼풀 염증 치료를 시행한다. 안구의 염증이 주된 원인일 경우 항염증 치료를 시행한다.

라식수술, 백내장 수술 이후 일정 기간(각막지각신경의 재생기간) 동안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난 이후 거의 대부분 원래 상태로 돌아오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수술이전에 건조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수술 이후 건조증이 심해지고 장시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법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이 원장은 "눈물 분비를 감소시키는 약제복용 여부를 점검하고, 눈물 증발을 가속시키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드는 냉난방을 가급적 줄여야 하며, 모니터는 눈높이 아래에 위치시킨다. 독서나 컴퓨터 업무 중에는 눈을 완전하게 자주 깜박이면서 주기적으로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실내 온도는 낮추고 습도는 높이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안구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시간 눈을 쓸 때는 의식적으로 깜박이는 횟수를 늘리고, 먼 산을 보거나 인공누액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과 의사가 선택한 안과

박대홍 원장
문경삼성안과



문경삼성안과 원장 박대홍입니다. 저는 2013년 12월 메트로안과에서 아내와 함께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제가 42세(만41세) 때에 수술 받았어요. 메트로안과의 원장님들이 모두 저의 경북의과대학 선배님들이라 예전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메트로안과의 모든 원장님들도 메트로안과에서 라식, 라섹수술을 받았다는 점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더욱 믿음이 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깐 대략 20년 이상을 안경과 함께 살아왔네요. 사실 그 동안 안경 쓰는 것이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안경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둘째 아들 녀석과 몸싸움놀이를 할라치면, 이놈의 안경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렌즈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렌즈를 하면 눈이 금세 충혈 되고 난시도 심해서 렌즈를 해도 별로 밝지가 않았어요.** 안경이 차츰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렌즈를 할 수도 없으니 결국은 라식수술을 결심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실은 제가 라식수술을 하는 데 적잖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제 눈이 꽤 고도근시였고, 더구나 난시도 심했죠.** 오래 전 라식기술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라식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불가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다행히, 최근 라식수술 장비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특히나 이 곳 메트로안과에 있는 수술 장비들은 그 중에서도 최첨단의 것들이라, 저같이 고도근시, 고도난시 환자도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꽤나 고도근시, 고도난시인 저를 앞에 두고 심삼도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생각합니다.

"대홍아 걱정마라.

수술 후 남은 각막두께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근시, 난시가 심하지만 **좋은 결과** 있을 거다.
하면 된다. 걱정마라."

수술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선글라스를 이제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야외활동을 무척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동안 눈부신 햇살아래에서 선글라스를 못 쓰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선글라스 그냥 막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이제는 저도 막 골라 씁니다. 20여 년 만에 머리 깎는 모습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된 점도 너무 좋았네요.

**여행가서 안경 때문에 고생하던 기억,
이제는 걱정 없어요.**

예전에 멀리 여행가서 안경이 파손되는 바람에 여행 자체를 망친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여행갈 때마다 여러 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졌어요. 아 참, 수영장에 가보니 정말 좋더군요. 안경이 없으면 저는 0.1도 안 되는 시력이었어요. 그래서 늘 도수 들어간 수경을 썼죠. 그렇지만 수경을 써도 잘 안보였어요. 왜냐하면 수경에는 난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난시가 들어간 수경은 따로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경을 써도 잘 안보였던 거죠. 그나마 수경마저 벗으면 거의 안보였으니까 잘 안 보이는 수경이나마 늘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늘 수경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불편했던 점이었네요. 라식수술 후 수영장을 가보니 참 살맛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것은 역시 아이들과 마음 놓고 몸으로 놀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경이 파손될까봐 몸으로 놀아주다가도 안경 쪽으로 아이들의 손이 오면 소리치기 바빴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42살에서야
겨우 받게 된 라식수술!
대만족입니다.**



내 눈을 위한다면 검사의 수준부터 따져봐야...

Opto map 옵토맵



환자에게 **편리함**을 드립니다.

눈에 산동약을 넣고 기다리는 시간(1시간)과 산동약의 약효가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시간(5시간) 동안 환자분이 겪어야 할 불편함을 배려하여 메트로안과가 최첨단 검사장비를 도입하였다. 옵토맵은 안구의 내부인 망막과 맥락막을 촬영하는 영상장비로 동공의 크기에 상관없이(산동약 사용 없음) 0.3초안에 망막 및 맥락막의 80%(200degree) 촬영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망막질환의 **조기발견**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망막관련 질환(당뇨망막, 망막박리, 당뇨 등)을 발견하는데 탁월하여, 조기치료가 가능합니다. 망막관련 질환은 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인지하는 순간에 이미 악화되어 치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Recording기능으로 질환의
호전과 악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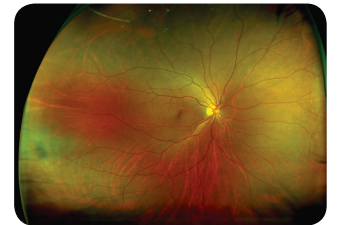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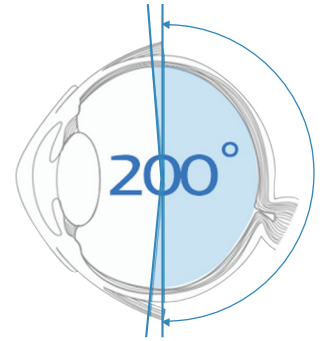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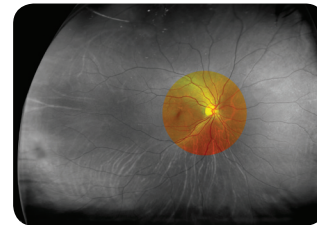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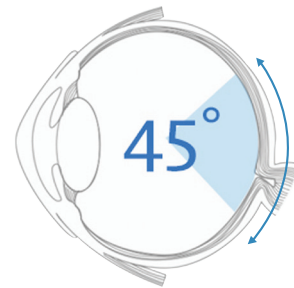
매우 빠르고(검사시간 0.3초)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여, 병원을 방문할 때 마다 질환의 호전 또는 악화 상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분 눈 상태를 실제영상(3D)으로 보여드립니다.

망막의 중심부 및 주변부까지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여,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안저검사의 경우, 망막의 주변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산동약을 써야 하고, 환자는 산동약과 눈부심, 오랜 시간 검사가 진행되어 검사자체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메트로안과가 선택한 옵토맵은 0.3초안에 망막의 주변부까지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어린아이, 60세이상 연령층, 당뇨환자, 산동이 되지 않는 환자 등에게 꼭 필요한 검사장비입니다.

일반안저검사

VS

옵토맵 망막검사



일반안저검사
산동검사, 무산동 검사오후
45° 검사
망막 중심부 검사
눈부심 많음
시신경 및 황반검사 가능
무산동 망막주변부위 검사 불가능
맥락막검사 불가능
27번의 촬영으로 가능
1시간~1시간 30분 소요

Optomap
무산동검사
200° 검사
망막 중심 및 주변부 검사
눈부심 적음
고도근시 시신경 및 황반검사 가능
무산동 망막주변부위 검사 가능
맥락막검사 가능
1번의 촬영으로 가능
0.3초

옵토맵을 이용한 무산동광각안저촬영기는 지난해 7월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밀 진단 검사 기로서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 및 대형 안과 전문병원에서 사용 중이며, 대구의 경우 메트로안과가 처음으로 옵토맵 장비를 보유하여 안전하고 빠른 검사에 한발 더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광학 기술의 대명사 **ZEISS**

세계시장에 대처하는 자세 광학 기술의 대명사
칼자이스의 선진기업문화를 통해 배우자

사업 시작의 계기는 광학을 향한 열정과 비전 이윤창출이 아닌 엔지니어로서의 창의적 열의를 최우선으로

지금으로부터 167년 전인 1846년, 28세의 청년 칼자이스(Carl Zeiss)는 독일 동부의 예나(Jena)에서 소규모 정밀 기기 및 광학 회사를 설립했다. 자신의 이름을 따 사명을 칼자이스로 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직업 교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대학 진학 대신 직업학교를 택하였다. 대학과 직업학교 선택 비율은 4대 6 정도인데, 회사의 창업자인 칼자이스도 많은 직업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칼자이스는 광학 관련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싶다는 목표 아래 광학회사 설립에 대한 꿈을 현실로 옮기게 된다. 칼자이스의 발전은 눈부셨다. 1872년부터 견고한 과학적 계산을 기반으로 광학 현미경의 생산이 시작되었고, 광학 분야 또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했다. 1876년, 칼자이스에게 큰 행운이 뒤따랐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에른스트 아베(Ernst Abbe)를 동업자로 만난 것이다. 그의 학문적 업적을 통해 이 회사는 기술적 우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칼자이스의 명성은 광학 및 광전자 정밀 기기, 그밖에도 반도체 계측기와 의료기 분야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칼자이스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경 광학 분야에서도 세계 2위의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동 학림, 김지연, 권준화, 강한기

칼자이스의 장기적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광학 부문의 핵심 역량

칼자이스는 광학 부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개별적인 광학 기술을 가진 기업은 있지만 광범위한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칼자이스밖에 없다. 주력 사업군인 광학 현미경, 전자 현미경, 반도체 계측장비, 의료기기(외과용 현미경 등), 생활 용품(안경 렌즈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칼자이스가 말하는 오랜 세월 핵심역량을 유지·개발해온 성장 동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한다. 첫째, 창업 초기부터 지속되어온 R&D 투자이다. 2012년의 연구 개발 투자 규모는 3억 5,900만 유로인데, 연간 매출액의 8~10% 이상이 연구 개발비로 지출됐다. 예나와 오버코헨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주로 장기적인 광학 부문 기초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학문적인 역량 없이는 기초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활발하게 진행된 산학연 기술 개발 덕분이다. 19세기 말 대학과 연구 기관 간의 공생 네트워크가 형성, 지금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해당 지역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 연구 등 산학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원동력은 스피드보다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빨리 완성한다는 전략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점이다. 제품 개발 초기부터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객을 연구 개발에 참여시킨 것이다. 핵심역량은 시장의 요구와 접목되어 고객 맞춤형 제품이 생산되고, 로열 고객층이 생기게 된다.

광학 분야의 핵심 역량 구축, 글로벌 시장 개척,
가족적인 기업 문화, 재단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공헌



100여 년 전부터 해외에 진출한 이후 칼자이스는 지금 전 세계 30개 나라에 50개 지사를 두고 있다.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있지만 광학 시장 자체가 너무 좁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때는 시장 가능성과 고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사에서는 전략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사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가족적인 기업 문화 세계 곳곳에 있는 칼자이스 그룹 종사자는 2만 4,326명에 달하는데, 특히 독일에는 1만 389명의 직원이 있다. 이들을 칼자이스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 회사의 이직률은 1% 미만이다. 칼자이스만의 따뜻하고 가족적인 문화가 그 비결이다. 칼자이스의 기업 문화는 미국계 회사의 성과 중심적이면과 사무적인 분위기와 달리 매우 가족적이면서 개방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원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애정을 갖고 직원 중심의 경영을 펼쳐야 한다. 얼마 전 전 세계의 칼자이스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칼자이스 재단은 재단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이다. 광학과 포토닉스(빛을 사용한 정보 전달을 다루는 연구) 분야의 독일 대학 석사생들과 방문 교수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지원도 하고 있다. 사회 공헌을 위해 연간 매출액의 1%를 사용한다.

칼자이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공비결을 꼽고 있다.

첫째, 경제적 여건이 안정되어 점진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핵심 역량 강화이다. 칼자이스도 많은 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기회가 있었으나 핵심 역량인 광학 부문에만 집중했다. 셋째, 직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 직원의 열정과 참여 의식을 이끌어낸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 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칼자이스를 통해 우리는
시대가 요하는 기업, 시대가 요하는 인재상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유일 최상위 플스펙!

OPMI LUMERA® 700 수술현미경 (2013년형)

전세계 최고 광학기기 독일 ZEISS사의 수술 현미경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는 백내장 현미경을

M 메트로 인과에서 만나세요



**SCI-Stereo Coaxial
Illumination system**

백내장 수술 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탁월한 시야와 해상도,
선명도 확보, 동양인(작은 눈/검은 동자)을 위한 최적의 효과

**RESIGHT™
fundus viewing system**

더욱 정밀하게 망막을 보면서 수술이 가능하고
수술 시간 단축, 안전성 증가, 수술의 정확성 증가

**Superlux
Xenon Eye, HaMode™**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LED 광원 사용으로
눈에 부담을 줄여 빛에 의한 신경 손상을 최소화



Cral Zeiss
수술 현미경 사용병원

삼성서울병원 | 신촌세브란스 | 고려대학교병원 | 서울대병원
삼성아산병원 | 삼성아산병원 | 서울성모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내 나이 일흔...
안경없이도 지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5세 주부 조덕례님



내 나이 일흔, 안경을 들고 가까이 당겨서 보던게 최근 들어 눈도 계속 침침해져 조금이라고 안경을 벗고 살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을 안고 안과를 찾게 되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결정하였다. 왼쪽 눈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몇일 간격으로 오른쪽까지 하고 나니, 이제는 안경 없이도 지낼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안경 없이 보내기를 6개월, 안경을 벗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거 같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준 이준훈 의사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급형 백내장수술은 돈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년을 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용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밝은 세상을 찾았다.”

57세 메디투어 대표 조현석님



수술 전 초고도 근시에 노안,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안과 검사 후, 안구삽입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이야기에 수술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왼쪽 눈을 먼저 수술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3일 뒤에 오른쪽 눈을 수술했다. 수술 후 지금까지 전혀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렌즈가 삽입되어 있지만 착용감이 없고 자연스럽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수술하는 과정에서나 수술 후의 결과에 100% 만족했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을 추천해주었다. 그만큼 메트로안과의 실력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부터 수술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와주신 메트로안과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메트로안과의 특별한 안내렌즈 삽입술을 소개합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이 필요한 분들께

안내렌즈 삽입술이란?

각막과 수정체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특수 고안된 렌즈를 눈속의 홍채 앞에 또는 뒤쪽에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인체에 친화적인 재질로 만들어져 시력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 우수하며 특히 고도근시나 얇은 각막 두께 때문에 여타의 시력교정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에 각막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시력교정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시 교정

근시의 시력보정을 위한 특수렌즈이다.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도 각막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 조절이 가능하다.

근시 + 난시 교정

근시뿐만 아니라 난시까지 모두 교정이 가능한 렌즈이다. 렌즈의 난시 방향과 눈의 난시 방향을 잘 맞추어 삽입함으로써 근시 및 난시가 교정된다.

안내렌즈 삽입술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고도근시

각막에
상처나 질환이
있는 경우

너무 얇은
각막두께

야간
동공크기가
너무 큰 경우

안내렌즈 삽입술용
렌즈를 소개합니다.



ICL



알티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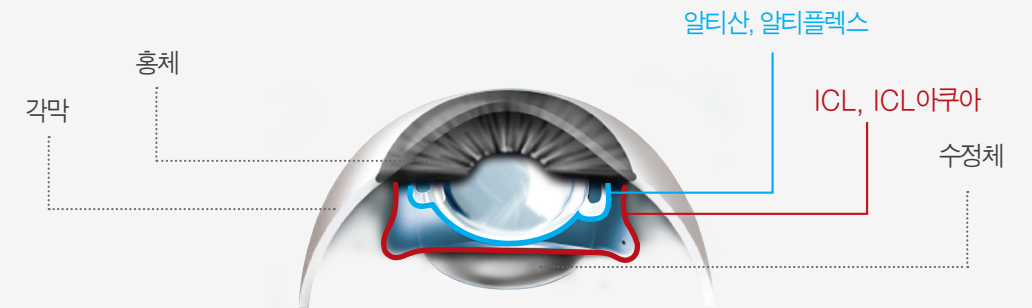


알티산



ICL 아쿠아

안내렌즈 삽입위치에 따른 렌즈의 구분



수술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21~50세의 성인으로 근시 및 난시를 가지고 있는 분, 기존에 녹내장, 홍채염, 당뇨병 망막병증 등 안과질환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은 각막조직의 손상이나 제거 없이 고도 근시 및 난시까지 넓은 범위의 시력교정이 가능합니다. 수술 후 각막 붕합이 필요 없는 3mm 내외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눈 안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 경성재질의 렌즈(알티산)는 수술 후 붕합이 필요하며, 난시 유발의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수술 후 안압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수술전에 홍채절개술이 필요합니다. 단, ICL 아쿠아 렌즈는 홍채절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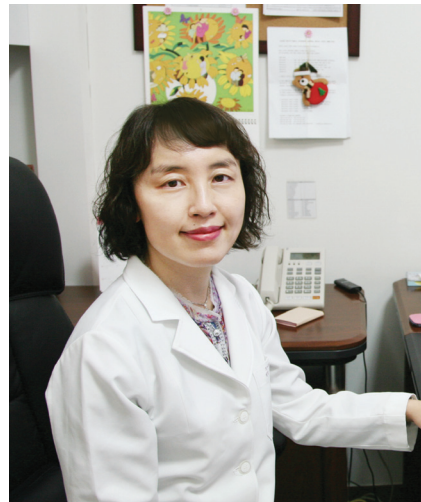
눈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의에게 검사 받아야 합니다.

환자의 눈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렌즈가 주문 제작되므로 수술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단안 30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3~4시간 안에 안압을 측정한 후 바로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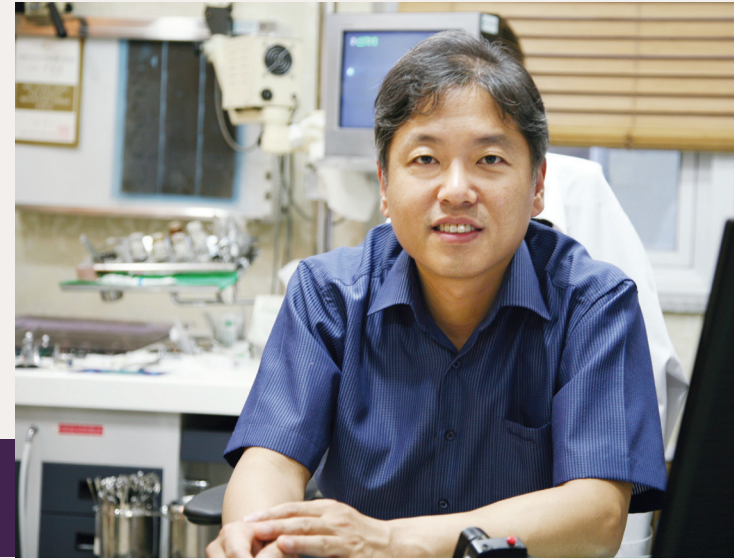
의사들의 라식후기



의사들이 가장
많이 라식 수술한 안과?

“ 늘 얼굴을 찌푸리고
진료하던 내가
인상이 젊어 보인다는
평을 듣기까지 ”

반정민
민이비인후과의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노안이 찾아오면서

의사들이 라식수술을 결정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현미경, 내시경 수술 등 미세한 작업을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라식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다보니 책이나 모니터를 보는데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귀나 콧구멍 등을 미세하게 진찰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메트로안과에서 충분한 상담 후 라식을하기로 결정을 했고 10여 분의 간단한 시술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히려 젊어 보인다는데요?

수술 4일 후부터 안경을 벗고 현미경이나 모니터를 보며 진료를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무엇보다 안경을 벗고 나니 얼굴을 찌푸리며 사물을 보던 습관이 없어졌다고 병원의 직원들이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찌푸리며 업무를 보고 있었나보다. 그래서 수술 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인상이 젊어 보인다는 말이었다. 이마에 주름도 없어질 수 있으려나. 진작 수술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다. 환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보이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수술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메트로안과를 한번 방문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메트로안과라면 후회 없이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안경 없이 얼굴 찌푸리지 않고 진료할 수 있게 수술해준 메트로안과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민이비인후과의원

진료안내 비염, 축농증, 코골이, 알레르기비염, 코막힘, 보청기, 난청클리닉, 어지럼증, 이명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1-2 번지 아이코아빌딩 302호

전화번호 054-282-8575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 삶의 변화를
한번 껴볼까하는
마음에 수술을
결정 했습니다.”

이상호
경대연합외과 외과 전문의



안과의사인 친구도 수술 받았다는데...

어느 날 메트로 안과 원장들과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 친구인 메트로안과 원장들이 모두 라식 수술을 받았고, 어찌면 더 정교한 수술을 하는 안과 선생님들인데 모두 경과도 아주 좋고 결정적으로 별로 아프지 않다는 말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생활의 악센트가 필요하다는 느낌도 들고, 삶의 변화를 한번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지난 26년간 안경은 내 신체의 일부분 중 하나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안경이 불편한 줄을 잘 모르고 생활해 왔다. 또한 라식이라는 수술은 알고 있지만 외과의사인 나로서는 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외과의사의 3대 조건은 "Eagle's eye, Lady's hands, Lion's heart"라고 하는데 시력에 문제가 있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에 라식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서는 별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경이 없으니 이렇게 편한데

안경을 껴도 평소에 별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안경을 벗고 생활하니 너무 편하고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 안경을 찾을 필요가 없고, 뜨거운 국을 먹을 때 김이 서리지 않아서 좋고, 안경 닦을 일도 없었다.

수술 후 2주가 지나니 눈에 이물감도 거의 없고 안약을 넣지 않아도 되고 해서 더 편해 진 것 같다. 골프를 치는데 공은 더 잘 맞는다. 최근 라운드 중에서 컨디션이 최고인 것 같다. 고글 끼고 한껏 폼도 내보았다. 사우나에 가셔도 이젠 안경이 필요 없다. 아직 안경을 끼지 않는 내 모습에 조금 낯설어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평소 도수 있는 수경이 없으면 수영하기가 힘들었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한동안 쉬고 있었던 수영도 다시 시작해 볼까 한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준 메트로안과 원장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수술 받는 입장이 되어보니 묘한 긴장감이 드네요

병원에 가보니 그야말로 호텔이 따로 없고 시설이 정말 훌륭했다. 검사를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 결정을 하고 수술대에 누웠다. 항상 나는 수술을 하는 입장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그날은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대에 누웠다. 묘한 긴장감이 들긴 했지만 별로 겁이 나거나 무섭지는 않았다. 수술 당시는 안구가 조금 눌린다는 느낌 외에는 별 통증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수술 후에도 눈물이 많이 나거나 그리 불편하지는 않았다. 수술이 끝나고 약 1시간 정도를 누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경이 없는데도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술 바로 직후는 별로 잘 보이지 않다가 집으로 가면서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신기했다.

경대연합외과

진료안내 비만·복강경클리닉, 정맥류클리닉, 대장·항문클리닉,
유방·갑상선클리닉, 탈장·액취증클리닉

주 소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67-64번지 서해빌딩 6,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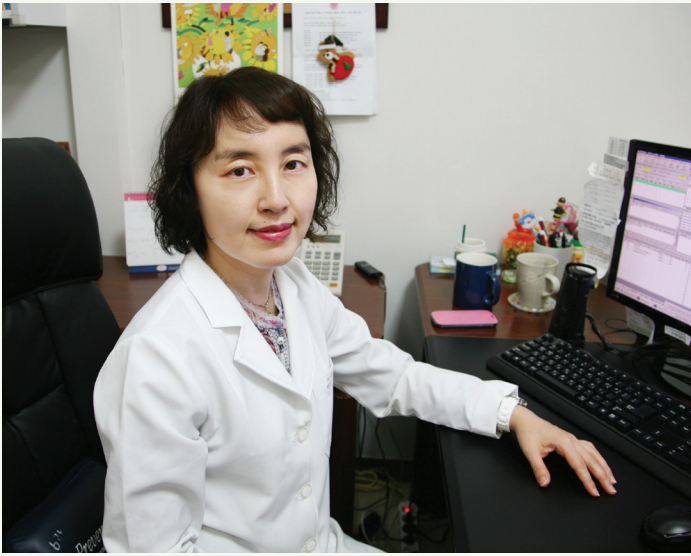
전화번호 053-793-0075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수술 받아
믿을 수 있는 메트로안과”

이예진
시지열린아동병원 소아과 전문의



편안하게
검사 받았죠

검사를 받으러 병원 문을 들어서니 호텔 같은 럭셔리한 분위기와 함께 친절하고 상냥한 직원들의 안내가 시작되었다. 검사장비는 진행하기 쉽도록 잘 배치되어 있었고, 마지막까지 하고 나니 눈도 몸도 좀 지친상태, 그 때 카페에서 제공되는 한 잔의 커피는 피곤함을 녹여주었다. 검사를 했더니 각막이 좀 얇기는 하나 수술하기에 문제는 없다고 하셨다. 검사결과를 종합하고 다시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위한 마지막 체크를 하고, 인트라라식 수술을 하기로 했다.

안경도, 렌즈도
불편 했어요

안경은 눈을 작아 보이게 하고, 렌즈를 끼면 몇 시간도 못가 눈이 아픈데다 빼고 나면 충혈이 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선뜻 수술하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부비동염 수술의 기왕력이 있어, 최근 들어 안경을 끼면 코와 안면의 통증과 두통이 자주 왔었다. 제발 안경을 벗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면서 큰맘을 먹었다.

드디어
수술 하는 날

오늘이 안경을 벗는 날이라고 만인에게 공포하고, 드디어 수술, 전혀 긴장은 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수술대에 누웠다. 이상희 원장님께 모든 것을 편안히 맡기고 난 지시에만 따랐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 되어 갑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하듯 계속 되는 원장님의 멘트에 더욱 안심을 하면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집에 와서 한숨자고 4시간이 경과하니 정말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다. 안경을 끼지 않고도 너무나 잘 보였다. 광명을 찾았다. 그래서 정말 할 만한 수술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수술 후
그저 좋다는 말밖에

눈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다들 먼저 경험한 나에게 물어왔다. 시력이 나뉘는 때는 수없이 걱정했던 것들. 그러나 자고 일어나 눈 뜨니 세상이 다 보이고, 안경 없이 운전할 수 있고, 아이랑 장난치며 안경 망가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지금이 너무 좋다. 아직도 가끔 한 번씩 손가락을 갖다 대고 안경을 올리려다 피식 웃곤 하지만... 그래서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메트로안과를 주저 없이 추천해주었다. 아무 걱정 없이 일단 한번 가보면 알거라고 말이다.

시지열린아동병원

- 진료안내** 신생아클리닉, 성장/비만클리닉, 소아비인후과클리닉, 신요로클리닉, 심장병클리닉, 감염병클리닉
- 주 소**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567번지 4, 5층 (신매역 5번 출구 아레나 스포츠센터 4, 5층)
- 전화번호** 053-791-3700
-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24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1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9시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무엇보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신 원장님들과
모든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눈 뜬 행복한 날을 선물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수술 후 달라진 점?
한마디로 보인다는 것!”
부부가 함께 했어요

김경원, 김은영
강북연합내과 내과 전문의

라식이 안전할까
고민 했었죠

몇 해 전부터 인가 아내가 틈만 나면 라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라식의 안정성 때문에 의사인 나로서도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그럴 때 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내지 하며 웃어넘기곤 했었다.

메트로안과의 식구들도
직접 수술했다는 이야기에
결정 했어요

메트로안과를 들어서는 순간 병원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현대식 인테리어에 놀랐고, 그보다 더 놀란 건 몇 달 만에 본 친구의 안경을 벗은 모습 때문이었다. 친구의 안내로 전국에서도 몇 대밖에 없다는 병원의 최신장비 및 시설을 둘러본 후 그 자리에서 아내와 아마리스 인트라라식을 결정했다. 병원의 원장 및 부인들 전원과 다수의 직원들이 본인들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개원 후 아내와 10년 넘게 내과를 같이 해 오면서 우리 가족, 우리 직원들이 믿고 몸을 맡길 수 있는 병원만 되면 의사로서 보람되지 않겠냐고 늘 이야기해왔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앞이 잘 보이네요

수술 당일 아내와 같이 하는 병원진료를 마치고 곧바로 메트로안과로 향했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한 후에 수술실로 들어갔다. 원장님이 들어오고 수술을 시작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어깨와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점안마취 후 압박감이 오더니 긴장한 거에 비하면 허탈할 정도로 이내 수술은 끝이 나버렸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난 후 집으로 가도 된다는 말에 일어나면서 무의식중에 가방에서 안경을 찾았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하긴 30년 넘은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이상하겠지. 안대를 한 눈이지만 신기하게도 앞이 잘 보였다. 이전에는 안경을 벗으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말이다.

수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시력을 측정하니 양안 1.2/1.2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다. 수술 전 가장 걱정했던 점이 내시경 시술시 미세병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었다. 하지만 이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수술 후 좋은 점이란?

여러 가지 세세한 것도 많겠지만

보인다는 것,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나지 않을까 싶다.



강북연합내과

진료안내 당뇨클리닉, 고혈압클리닉, 갱년기클리닉, 순환기클리닉, 소화기클리닉, 내분비클리닉, 호흡기클리닉

주 소 대구시 북구 구암동 769-4번지 상호빌딩 2층

전화번호 053-326-7200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라식 후 교정시력이 더 좋아져 병변들이 더 잘 보였다. 이전엔 안경 끼고 교정시력이 0.8을 넘지 못했는데 1.2까지 올라왔으니 더 잘 보일 수밖에. 수술 후 3일 정도가 지나니 눈부심, 이물감도 많이 줄어들었다.

우연한 기회에 저지른 라식수술, 좀 더 고민했으면 아마도 못했지 않았을까? 누가 말했든가, 눈은 삶의 등불이라고. 혹시라도 아직도 수술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자신 있게 메트로안과를 추천한다.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하고 편안하게 진료해 준 심삼도 원장 및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기술 53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근후(이화여대 명예교수) 저음 | 김선경 엮음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일곱 가지 병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늘 유쾌한 노(老) 학자가 전하는 나이 들의 즐거움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철들지 않는 소년이 살고 있다”



IBK퇴직설계연구소 2014, SPRING vol.06에서 발췌(글쓴이 임지영)

노년,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즐겨라

마늘, 올리브, 복분자, 동충하초... 다른 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젊음의 묘약을 찾아 헤맬 때, 이근후박사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고 주름진 노년의 얼굴을 당당히 마주한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학생들과 환자들을 만났던 그는 76세의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하면서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남들은 지레 겁을 먹기 마련인 일흔여섯이 숫자에 불과함을 몸소 입증한 일대 사건이었다.

"공부에 때가 정해져 있나요? 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적기지."

이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파격적인 일을 하면서 삶의 재미를 찾았다. 의료진과 가족의 반대에도 폐쇄적인 정신과 병동을 개방 병동으로 바꾸는가 하면 사이코드라마 치료법을 도입, 정신과 치료의 새 장을 열기도 했다.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설립했는가 하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부터 네팔로 의료봉사를 다녔다.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노 박사가 삶의 철학을 집대성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책을 펴내 화제다. 멋지게 나이 들어감의 정석을 보여주는 팔순의 이근후 박사, 그의 인생은 아직 비등점을 1도 남겨둔 99도씨로 뜨겁게 상승하며 끓어오르는 중이다.

80일을 딱 반 토막 한 '40일간의 세계일주'를 떠난 시기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처음으로 그런 노년의 밑그림은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닌, '저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2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은행으로부터 10년 동안 넣은 재형저축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시 은마아파트 한 채 값과 맛먹는 천만 원을 들고 그가 무작정 찾아간 곳은 한 여행사. 그곳에서 이 박사는 40일간의 세계여행 스케줄을 짜달라고 부탁했다. 처음 계획을 듣고 펄쩍 뛰었던 아내는 '딱 한 번만 우리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자'는 남편의 청을 끝내 물리치지 못하고 무모한 40일간의 세계일주에 동참했다. 몽블랑 여행 중 부부는 한 무리의 노인네들을 실은 관광버스 한 대와 마주쳤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노인들이 천혜의 명산에 발 한 짝 디디지 못한 채 구경만 하는 것을 보고, 이 박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일곱 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노화는 장애가 아니다.

은퇴 후 교수에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그는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공부보다 하고 싶어서 한 공부가 훨씬 재미있었다'고 소회를 털어놓는다. 사이버대학 졸업 후에는 영화에 매료되어 영화 연구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영화 관련 일을 하는 막내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워크숍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그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구부정한 팔순 노인이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자 없는 젊은이었던 것.

나이 들어가는 것이 어쩐지 서글프기만 한 사람들에게, 이 교수는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모래시계에 남은 모래가 '이것밖에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발상을 전환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설득하기 위해, 퇴임 후 그는 아내인 이동원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를 설립, 청소년 성 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행복한 여생 즐기기'라는,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 수행을 위해 이 교수는 다섯 가지 방법론인 'S.M.A.R.T 에이징(Aging)'을 제시한다.

Simple
Move
Artistic
Relax
Together

단순한 삶을 살되
많이 움직이고
예술적 감성을 지닐 것이며
긴장을 풀고
함께 나누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복잡하게 사고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고가 복잡하고 감정적일수록 불행에 빠지기 쉽다는 말이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사고를 단순화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사의 말은 "소박함을 보이고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이기심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가져라"는 행복의 참경에 이르는 노자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아름다운 나이 듦이란 노화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과정일 것이다. 이 박사는 이를 '인생 이모작'이라고 표현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할 것은 집중한다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사람마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30여 분의 노트는
굳이 거창한 말을 붙이지 않아도
참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첫번째 고객입니다.

기다림을 위한 준비, 시작을 위한 분주함, 일상의 설레임...
진료시작 30분전 수간호와 조경래부장의 업무는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침이라는 귀중한 시간 활용법

오늘 하루도
온유하게 녹아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묻히는
정다운 벗이기를
평화로운 노래이기를

이해인님의 '아침의 향기'



고객을 위한 점검

동료와 함께여서 하루하루가 가치있는 일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장 밝고 경쾌한 목소리를 담아 서로 인사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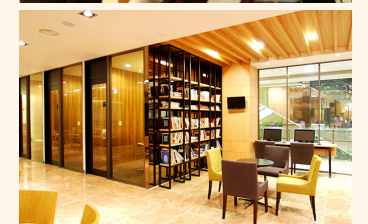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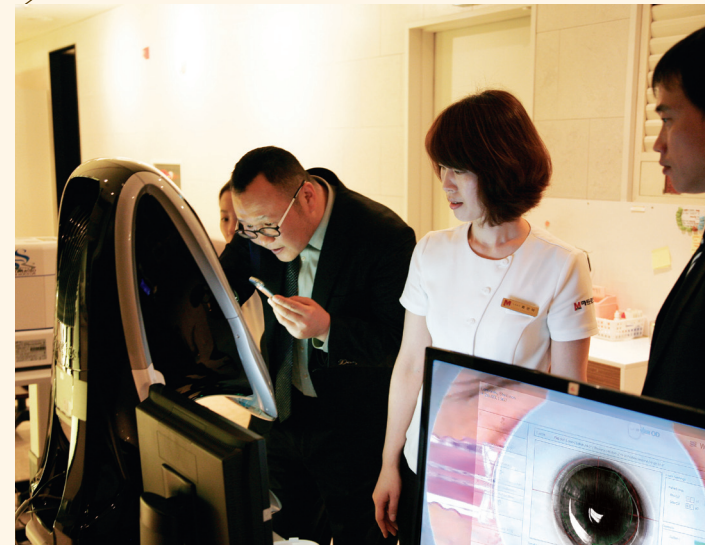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신의, 신뢰, 안전, 청결,
최상의 진료와 최상의 수술결과를 위해
하루 일정을 꼼꼼하게 논의한다.



화장실, 소파, 안내책자, 음료대
동선마다의 공간 상태를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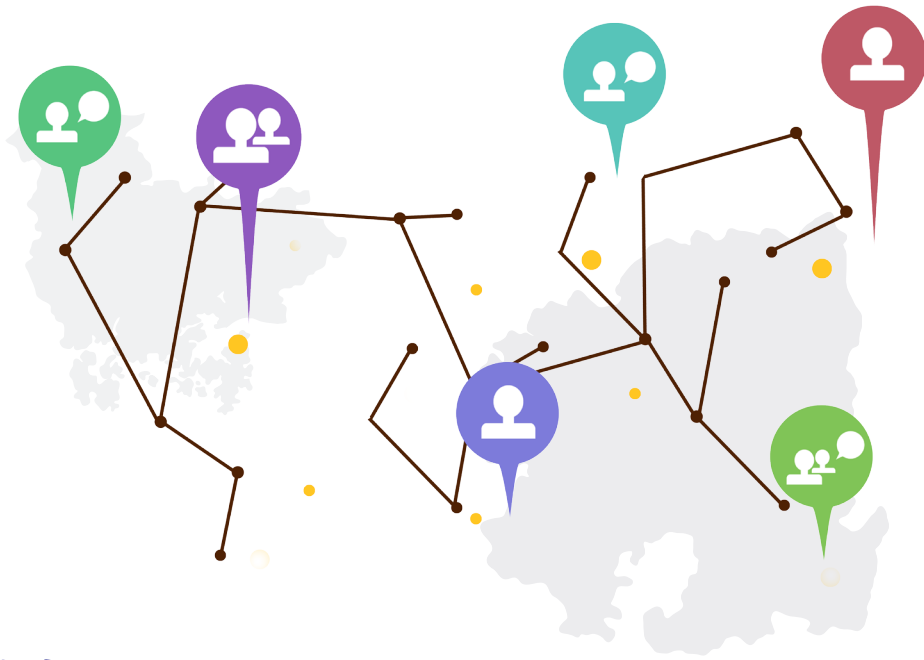
환자분들이 머무르는 동안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장비에는 이상이 없는지
매일 아침 살펴본다.



메트로 안과와 함께하는 친구들



거창군
거창제일안과
055) 943-7114



창원시
창원삼성병원/안과
055) 290-6060



창원시
진해파티마안과
055-545-9100



울산시
명안과
052) 273-8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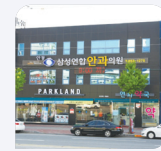
달성군
현풍양안과
053) 615-8875



영주시
영주성모안과
054) 631-3929



안동시
안동의료원/안과
054) 850-6231



안동시
안동삼성연합안과
054) 853-1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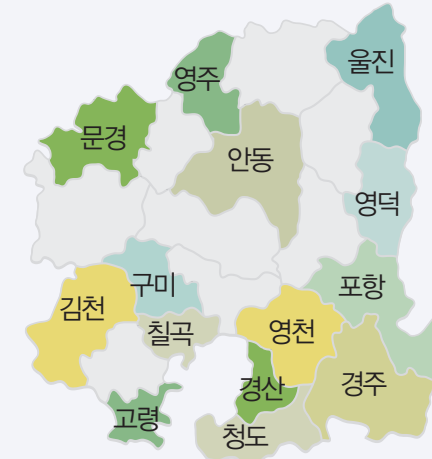
문경시
문경삼성안과
054) 554-1119



구미시
구미밝은안과
054) 455-9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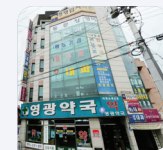
구미시
현대안과
054) 441-0880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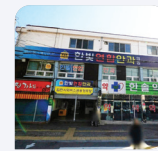
울진군
제일안과
054) 783-8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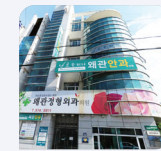
영천시
영천삼성안과
054) 338-7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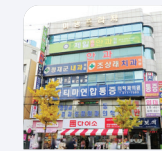
영덕군
영덕경대안과
054) 261-5813



김천시
한빛연합안과
054) 433-7587



칠곡군
난초꽃피다안과
054) 974-8575



경산시
경산제일안과
053-811-5463



포항시
홍해경대안과
054) 262-5817



포항시
오안과
054) 278-6717



고령군
고령경대연합안과
054) 955-0090



청도군
삼성안과
054) 373-6845



경주시
조수호안과
054) 777-0067



경주시
안강제일안과
054) 761-8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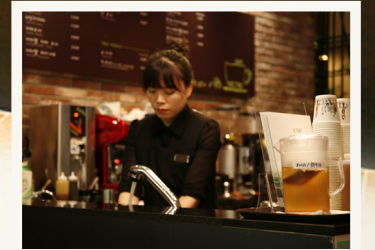
병원 밖의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 내다...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누는 사람,
독서를 하며 잠시 감상에 젖는 사람
수술 후 가족과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는다. 진료실을 지나면 보이는 고요한 카페에서는 남다른 재미로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으로 분주하다. 코끝을 스미는 아라비카의 풍부한 커피 향은 마음까지 녹아들게 하고, 신선하다 못해 그윽한 향이 문득 발길을 멈추게 한다. 커피 로스팅 기계의 울림이 경쾌하다. 바리스타의 손놀림과 환한 미소는 어느 카페와는 또 다른 서비스로 가슴 한켠에 감동으로 자리한다.



바,
스,
스,
미
큰 답이다.



	아메리카노 신맛, 쓴맛, 단맛의 아메리카노 향이 후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커피향보다 좋은 향이 또 있을까?		해로즈의 로즈티 진중한 베이스의 홍차 위에 아름다운 장미 향을 더한 감미로운 로즈티
	부드러운 카페라떼 낭만적이며 풍미가 탁월하다. 그 외 녹차라떼, 고구마라떼까지		국민 허브차 캐모마일 인도와 유럽이 원산지로 국화과에 속하며 허브차로서는 가장 많이 사랑받는 대표적인 차
	초콜릿향 카페모카 초콜릿의 조화가 일품인 커피 생크림과 함께 입안을 황홀하게 한다.		독특한 향기의 자스민차 감미롭고 이국적인 향을 지닌 허브차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꽃차 중 하나이다.
	상큼한 레몬에이드 레몬의 상쾌함과 경쾌함이 확~ 외닿는 느낌		달콤한 복숭아에이드 달달하면서 피곤까지 싹~ 가시는 이 상쾌한 느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길 위에 서면

깜깜한 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반짝인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빛이자 길을 지켜보는 유일한 눈이다.



헤드라이트를 교체한다면 종류도 따져야하고 밝기도 살펴봐야하고
가격도 비교해야하고, 밤길을 맡기는 헤드라이트에게
평상시의 관심과 다른 차와의 비교와 내 눈만큼의 기대가 필요하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원래의 색은 잃어버리고
뿌연 먼지가 헤드라이트를 뒤덮고
눈이 안보이니 사고가 날 수밖에.

헤드라이트를 교체한다면
종류도 따져야하고
밝기도 살펴봐야하고
가격도 비교해야하고.

밤길을 맡기는 헤드라이트에게
평상시의 관심과
다른 차와의 비교와
내 눈만큼의 기대가 필요하다.

어두운 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따라
길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만큼 반가운 건 없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종류

●●● 할로겐램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램프이고, 진공상태의
전구 안에 할로겐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빛
을 내는 전구이다. 백열전구에 비해 수명이
길고, 더 밝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 HID램프

HID램프는, 할로겐램프에서 진화된 기술로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빛을 내지 않고 고압
의 펄스를 이용해서 빛을 낸다. 할로겐램프
보다 밝고 더욱 멀리 빛을 비출 수 있으며,
전력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다.

●●● LED(Light emitting diode)램프

LED램프는, HID램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며, 자동차 헤드라이
트뿐만 아니라 모든 조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발광 다이오드로 화합물
의 전류를 흘려보내 빛을 내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다른 램프보다 수명이 길
고, 전력 전달력이 빨라서 F1머신에 테일라이트에도 적용되는 램프다.



문자소통 편리함이 주는 뒷모습

감정을 나누는 대화보다 정보만 주고받는 문자 소통이 더 편한 지금,
불쑥 전화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생각과 필요할 때 문자로 대
화를 주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vol. 187 발췌



사람들은 왜 통화하기를 꺼릴까?

시도 때도 없이 벨이 울리는 모바일 폰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자로 필요한 대화를 원할 때 주고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자란 모바일 세대의 좌절과 거절에 한없이 약한 허약한 자존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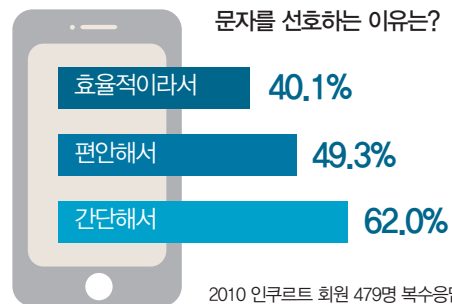
대화기피, 이것이 문제

정보만 담은 문자로 소통하다 보면 관계가 피상적이며 공허해질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감이 줄어들게 되어 사회성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
통화공포증을 넘어 대인기피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월평균 음성통화량



문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2010 인쿠르트 회원 479명 복수응답 대상 조사

안과 의사는 라식수술을 안한다?

심삼도 원장 올레이저라식

10분정도 남짓한 수술시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직후 바로 또렷하게 보
이고 일주일 후에는 안경없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35년
동안 함께했던 안경이 무색
해져 버렸습니다.

채선휘 원장 올레이저라식, 라섹

한쪽 눈에는 라섹을 다른쪽 눈
에는 올레이저라식을 했습니
다. 저 스스로 라섹과 라식을
모두 경험한다면 환자분께 더
도움이 될까라 생각했죠. 각각
다른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환
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상희 원장 라식

라식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그 수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라식을 했습
니다. 9년 정도 되었는데 만족
하고 있습니다.

박성빈 원장 라섹

낮익은 수술방인데도 내가 환
자가 되어 수술침대에 누워보
니 생소했어요. 환자분들도 이
렇게 떨리고 불안했구나 싶더
군요. 안경없이 생활하게 되어
만족했고, 무엇보다 환 자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
지요.

김동주 원장 옵티프리엄라식

심삼도선배님이 수술을 해주
셨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
배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저도
수술받게 되었는데, 수술한 이
후에는 제가 다른 분들께 많이
권하고 있지요.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눈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미간을 찌푸리신 거였습니다.
화가 나셨는 줄로만 알던 저의 부질없음이
못내 가슴아픕니다. 아버지의 눈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뒷바라지에 행복해 여기시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눈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라, 아르바이트하라 잠자는 시간
쪼개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랑스런 아들...
그 바깥와중에 렌즈착용에 여념이 없는
아들이 오늘도 아침밥을 거르고 간다.
조금은 충혈된 빨개진 눈에 내 가슴까지 저며온다.
와이프 몰래 감춰두었던 비상금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아들 라식수술부터 해줘야 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메트로 안과에 가기로 했습니다.